

# 안전의 생활화로 진정한 선진안전 문화 구현

##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주)화인

(주)화인은 전남 광양 포스코 제철소 내에서 크레인, 굴삭기, 휠로더, 무인로더 및 각종 설비를 이용하여 Slag를 처리하고 있는 전문 외주사로,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남지회가 안전우수사업장으로 적극 추천할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는 큰 모범을 보이고 있는 회사다. 이곳은 업종 특성상 폭발, 화재 위험이 매우 크다. 하지만 113명의 임직원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설립(2010년 7월 1일) 이후부터 무사고를 기록, 지난해 10월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2배수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안전에 대한 성과는 작업 능률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곳은 지난 2011년 포스코의 우수 외주 파트너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안전뿐만 아니라 보건 측면에서도 매우 큰 성과를 냈다. 전사적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지난해 전남 광양시로부터 '담배 연기 없는 기업'을 수상한 것이다. 위험천만한 제철소 환경 속에서 확고한 안전보건 문화를 구축, 지역사회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는 (주)화인의 안전관리 활동을 살펴봤다.

취재 임동희 기자 ldhfree@safety.or.kr



### 근로자와 작업환경에 맞춘 안전프로그램 운영

이곳은 2011년 KOSHA18001 인증, 2012년에는 ISO14001-9001 통합인증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예방 100일 작전, 안전멘토링 제도, 안전행동 관찰(SAO), 우편 원격교육, 위험성평가, 안전 런치타임 운영, 안전성과분석 회의, 안전메시지 발송, 작업표준 숙지도 평가 및 시청각 운동회 등 매우 다양한 안전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올해부터 운영 중에 있는 일일안전관리제도가 눈에 띈다. 이는 현장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일일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직접 안전조회 및 점검, 위험요소 발굴, 근로자 계도 등의 활동을 하게끔 하는 제도다. 넓은 시각에서 안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하면서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주인의식을 키우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곳은 기본적으로 직원들과 작업환경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활동을 편다. 예를 들어 저근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육 및 평가를 거쳐 합격 후 직무에 배치한다. 또 고연령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위험 작업에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가운데,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임원들이 매주 현장 면담을 실시하고 안전한 작업을 독려한다. 사고를 일으킬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고예방법에 대한 교육과 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있으며,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지적확인 포인트를 선정·운영 하면서 서두름과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해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가장 취약한 작업 5가지를 선정하여 △위험발굴·개선계획 수립 △개선 및 위험관리활동 △주기적인 관리 상태 점검 △표준화 및 피드백 등의 P.D.C.A 형태의 집중적인 위험관리활동도 펼치고 있다.

### 안전 계몽운동과 교육으로 안전에 대한 주인의식 높여

이곳은 업종 특성상 건설기계 및 차량의 이동이 빈번하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교통사고가 절대 발생치 않는다. 건물 목을 지나다 보면 운전자 모두가 지적확인을 한 후 출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의 안전에 대한 생활화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듯 직원들의 안전을 생활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이다. 10대 안전철칙을 제정·실시하고, 3ZERO(안전사고 ZERO, 설비사고 ZERO, 품질사고 ZERO)를 위한 100일 집중작전을 수시로 시행한다. 또 매월 19일에는 '자율안전 다짐 선언식'을 개최하고 20~30일을 안전강조주간으로 제정하는 등 안전에 대한 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기본적으로 직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가운데, 법정 교육 외에 사외 강사 초빙 교육, 우편원격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안전멘토링 제도와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교육·관리한다. 이는 신입직원들이 일정한 수준의 안전역량을 갖추기 때까지 주임급 직원들이 책임지고 철저히 교육·관리하는 것이다.

### 안전경영과 근로자들의 열정이 무재해의 원동력

김재시 대표이사는 “어떠한 공적으로도 안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현장 경영

방침을 편다. 이는 안전에 있어 매우 큰 힘이 된다. 대표 이사가 직접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그에 대한 개선을 최대한 신속히 실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곳의 안전에 대한 성과는 김 대표의 신념만을 가지고 이뤄낸 것이 아니다. 조래철 전무이사, 김홍묵 본부장 등 경영진들도 안전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둔다. 또 KOSHA18001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배상권 안전관리자도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 관리 업무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다. 여기에 위와 같이 현장 직원들의 안전의식도 굉장히 높다. 종합해보면, 경영진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 안전관리자의 열정, 직원들의 안전 생활화 등 3박자가 이곳의 무재해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곳의 안전이 앞으로도 기대되는 이유는 ‘안전의 생활화’가 매우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안전을 접하고, 스스로 안전활동에 나서는 것이 이곳의 일상적인 모습이 됐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어느 곳보다 단단한 안전문화를 갖춘 이곳의 사례가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 ☺



mini interview



김재시 대표이사

“안전한 행동이 습관화된 화인인 집중 육성”

안전은 정답이 없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임직원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안전을 실천해나간다면 사업장의 무재해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화인은 앞으로 안전한 행동이 습관화된 ‘화인인’을 적극 육성하면서 진정한 무재해 현장을 구현해나갈 것입니다. 또 모든 자원과 활동은 안전을 감안한 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경영에 있어서도 최고의 기업으로 자리 매김해 나가겠습니다.